

96. 7. 12

# 이번엔 여고교장이...

## 학생불러 이상한 자세 사진촬영...본인은 "거짓말"

## 경찰, 교장실 압수수색... 단순성추행도 구속키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 전면에 떠오르면서 경찰이 관련 사범에 대한 집중 검거에 나섰다.

경찰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강간이 아닌 단순 성추행도 혐의가 뚜렷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일선 관서에 긴급시달하기로 했다.

◇ 교내 성폭력=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중구 도원동 여여자상업고등학교 김아무개(62) 교장이

2학년 스아무개(15)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잡고 영장을 발부받아 교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장은 지난 3일 교장실에서 스양에게 앨범을 보여주며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편지를 쓰라"고 한 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목을 끌어안는 모습 등 4가지 자세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장은 스양이 이런 사실을 거짓으로 퍼뜨리고 있다며 스양의

집에 전화를 걸어 "자퇴서를 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11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어린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로 장흥 초등학교 전기철(54) 교사를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교사는 지난 달 27일 교내 방송실에서 양아무개(12·6년)양에게 "방송을 잘하라"며 접근해 가슴을 만지는 등 94년

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양양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여학생 11명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직장·동네·가정폭력=인천 남부경찰서는 이날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고생 스아무개(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주류유통업체인 서정물산 대표 김광석(31·남동구 간석동)씨를 구속했다.

부평경찰서도 이날 자신의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스아무개(6)양을 빈터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위성술(35)씨를 구속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의붓딸을 성폭행해 온 혐의로 손호섭(48·안동시 옥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 종합